

SPORTS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김시우, US오픈 골프 3R 공동 29위

김시우(사진)가 제 125회 US오픈 골프대회(총상금 2150만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29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15일(한국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몬트의 오크몬트 컨트리클럽(파 70·7330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로 4오버파 74타를 쳤다. 사흘 합계 6오버파 216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2라운드 공동 8위에서 21계단 내려간 공동 29위가 됐다.

올해 5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에 올라 자신의 생애 첫 메이저 대회 '톱10' 성적을 낸 김시우는 공동 11위 선수들과 불과 2타 차라 이번 대회에서도 '톱10' 가능성이 살아 있다.

3번 홀(파4)에서 퍼트를 세 번 하며 더블보기를 적어낸 김시우는 6번 홀(파3)에서는 약 7.5m 버디 퍼트를 넣었다.

그러나 이후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고비마다 중거리 퍼트가 홀을 외면하며 순위가 20위권으로 밀렸다.

김주형이 7오버파 217타로 공동 35위, 임성재는 11오버파 221타로 공동 54위다.

샘 번스(미국)가 4언더파 206타를 쳐 이틀 연속 단독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이창욱, 인제 슈퍼레이스 제2회 폴투원으로 '우승' 시즌 2승째

'2002년생 드라이버' 이창욱(금호 SLM·사진)이 '폴 투 윈'(예선 1위·결승 1위)으로 올 시즌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의 첫 번째 '밤의 황제'에 올랐다.

이창욱은 14일 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인제 스피디움(3.908km·40랩)에서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결승에서 1시간 7분 44초 13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예선 1위와 결승 1위를 석권한 이창욱은 '폴 투 윈'으로 이번 시즌 첫 번째 나이트 레이싱의 챔피언을 차지했다.

개막전에 이어 시즌 2승째를 따낸 이창욱은 드라이버 랭킹 포인트 60점을 쌓아 선두를 유지했다. 더불어 이창욱은 통산 두 번째 '나이트 레이싱'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창욱은 2023년 7월 인제 스피디움에서 나이트 레이싱에 펼쳐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4라운드 슈퍼 600 클래스(현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에서 처음 '밤의 황제'에 오른 바 있다.

1년 그라운드에서 출발한 이창욱은 19랩에서 피트인한 뒤 급유와 함께 뒤쪽 타이어 2개를 모두 교체하고 35초255 만에 트랙에 복귀했고, 다른 드라이버들의 피트인을 틈타 26라운드에서 다시 선두로 올라서며 그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이창욱의 팀 동료인 노동기(1시간 7분 59초 898)는 예선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라운드 접촉 사고로 5그라운드 강등 페널티를 받아 결승에서 7번 그라운드 출발의 핸디캡을 안고 출발한 끝에 추월쇼를 펼치며 2위를 차지했다.

개막전에서도 2위에 오른 노동기(랭킹 포인트 38점)는 드라이버 랭킹 2위로 올라섰다.

이창욱과 노동기의 선전을 앞세운 금호 SLM은 시즌 두 번째 '월투 피니시'를 만끽했다.

이번 시즌 데뷔한 일본인 드라이버 헨잔 로마(브랜뉴레이싱·1시간 8분 4초 756)는 세 번째 경기 만에 3위에 올라 처음 시상대에 섰다.

지난해 드라이버 챔피언인 '48세 노장' 장현진(서한GP·1시간 8분 9초 183)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경기 초반 황진우(준피트드)와의 접촉에 따른 페널티로 기록에 5초가 가산되며 4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료
10개국 300여명 선수 참가

전남도는 경남도, 부산시와 함께 13~15일 경남 통영 해양스포츠센터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새로운 요트항로 개척과 함께 요트산업 활성화를 통해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10개 국에서 300여 명의 선수 등이 참가했고, 경기는 통영, 여수, 부산 일대에서 진행됐다.

지난 13일 개막식에 이어 통영 한산해역에서 연안 경기가 펼쳐졌다.

14일은 본격적인 장거리 레이스가 진행됐는데, 통영 도남항에서 출발해 여수까지 항해하는 코스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항해하는 두 개 코스로 치러졌다.

『제4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

황선우 개인혼영 200m 우승·김영범은 '3관왕'

'제4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11일 개막, 15일까지 5일 동안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사)대한수영연맹 주최, 광주수영연맹 주관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수영선수권대회는 경영과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위밍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황선우는 개인혼영 200m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김영범은 계영 400m·자유형 100m 이어 계영 800m에서 각각 우승해 '3관왕'에 올랐다.

이중 주요 관심 선수로 주목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인 황선우(22·강원특별자치도청)가 주 종목이 아닌 데도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혼영 2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우의 위용 앞에서 이번은 없었다.

황선우는 14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1분59초05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혼영 200m는 한 선수가 점영-배영-평영-



전남도는 경남도, 부산시와 함께 13~15일 경남 통영 해양스포츠센터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성료됐다.

여수 소호요트경기장과 통영 도남항은 해양레저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거점으로 주목받는 곳으로 대회 기간 윈드서핑, 카약, 패들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요트 시승, 관람정 탑승 등 일반인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산에서는 국제청소년요트대회와 전국장애인요트대회가 함께 열려 대회 위상을 한층 높였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요트를 포함한 해양레저 스포츠의 대중화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힘써 해양레저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여수와 통영, 부산의 푸른 바다를 시원스레 누비며 남해안의 풍광과 낭만에 빠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한 황선우.

자유형의 손으로 50m씩 헤엄쳐 시간을 다투는 종목으로, 황선우는 주종목이 자유형 100m와 200m이지만 개인혼영 200m에서 다시 한번 최강임을

입증했다. 개인혼영 200m 한국 기록을 황선우가 갖고 있기도 하다.

서울체고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에 열린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분58초04의 한국 신기록으로 남자 고등부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황선우는 당시 박태환이 2014년 7월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2분00초31)을 무려 7년 3개월 만에 2초27이나 단축시킨 기염을 토했다.

황선우는 이번 광주 대회에는 오는 7월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과정에서 주 종목 대신 점영 100m와 개인혼영 200m에만 출전했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혼영 200m만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열린 점영 100m에서도 52초34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비록 4년 전 세운 한국 기록과는 1초 남짓 차이가 났으나 개인혼영 200m에서도 황선우에 앞서 레이스를 마친 선수는 없었다.

경기를 마친 황선우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

포츠를 통해 "4년 만에 출전한 개인혼영 종목이었는데 개인 최고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마무리해 만족스럽다"면서 "이번 경기를 계기로 개인혼영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세계선수권은 개인 종목으로만 네 번째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4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욕심을 내기보다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진짜 목표"라고 세계선수권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황선우는 개인혼영 200m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 수영의 새 희망'으로 떠오른 2006년생 김영범(강원특별자치도청)은 단체전인 계영 800m에서 양재훈, 김민준, 윤지환과 팀을 이뤄 7분 23초23으로 우승을 합작했다. 앞서 계영 400m에서 김민준, 김성주, 윤지환과 호흡을 맞춰 1위에 오르 고 자유형 100m에서도 우승한 김영범은 3관왕으로 대회를 마쳤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FC '베테랑' 수비수 심상민 임대 영입

“광주 아시아 무대 다시 이끌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울산에서 활약 중인 심상민(32·사진)을 임대로 영입해 수비를 강화했다.

부경고-중앙대 출신인 심상민은 연병별 대표팀을 차례대로 거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2014년 FCS서울에 입단해 프로 무대에 뛰어든 심상민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팀의 8강 진출에 기여하며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이후 2019년 포항스틸러스로 이적한 심상민은 상무 시절인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 시즌 20경기 이상 출전에 주전 풀백으로 활약했다. 특히 2023년에는 팀을 FA컵(현 코리아컵)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심상민은 빠른 발과 과감한 오버래핑이 장점으로 꼽히는 왼쪽 풀백으로 정확한 크로스 능력은 물론



론 롱스로인 능력까지 장착하며 다양한 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수비수다.

심상민의 영입은 기존 주전 풀백으로 활약하던 김진호의 부상이 탈을 메워줄 적임자라는 평가며 조성권, 권성윤 등 젊은 풀백들의

멘토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상민은 “광주라는 좋은 팀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 광주의 축구를 습득하고 따라갈 생각에 설렌다”며 “팬분들께서 아시아 무대에 다시 참가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실 것 같다. 광주가 다시 한번 더 아시아 무대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전했다.

송하중 기자

오승민·류은진, 영월국제주니어 테니스 남녀 단식 우승

오승민(디그니티아카데미)과 류은진(중앙여고)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영월 국제주니어대회 남녀 단식을 제패했다.

오승민은 15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황주찬(서인천고)을 2-0(6-4 6-3)으로 꺾었다.

올해 황주찬과 앞선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패한 오승민은 설욕전을 펼치며 국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류은진은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이예린(군위중)에게 2-1(6-7 3-7 6-3 6-0) 역전승을 거뒀다.



오승민(왼쪽)과 류은진.

연합뉴스

류은진은 전날 여자 복식에서 안혜정(중앙여고)과 함께 우승해 대회 2관왕이 됐다.